



안녕하세요? 김희자 수녀입니다. 저는 1979년에 수녀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저희 형제는 오빠와 언니, 여동생으로 제가 수녀원에 입회할 때 오빠는 신자가 아니어서 제가 수도생활을 하려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도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 오빠는 아주 열심한 신자가 되어 본당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며 지금까지 기쁘게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자 때 저희 수련소가 있는 광주에서 5.18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 거리에 나가 데모를 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988년에 미국 씨튼힐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미국 공동체수녀님들과 창설자이신 엘리사벳 앤 씨튼의 신앙의 유산과 숨결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 뒤 저는 주로 지역의 극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년 일하다가 인천교구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10년 동안 책임자로서 장애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뒤에는 상담전문가가 되어 12년 동안 상담사로서 사도직을 하였고 작년 1월부터는 익산에 있는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도직을 하는 것은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마더 씨튼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를 도와주고 고통 당하는 이를 위로하고 병든 이를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로 내 영혼이 느끼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움 안에서 주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매일 주님께 의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요양원에는 48분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거의가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치매를 동반한 상태이셔서 처음엔 개별



적인 성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분들의 단순함과 그분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40년동안의 수도여정 안에서 매 순간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제 삶을 봉헌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Hello! I'm Sister Kim, He Ja. I have a brother and two sisters.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79. At that time, my brother didn't understand that I wanted to live a religious life and rejected the idea because he was not a Catholic. However, he was baptized and became a faithful Catholic after I became a Sister of Charity. He has been eagerly joining various parish activities and enjoying his life with a deep faith.

When I was a novice in Gwangju,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f May 18, 1980 broke out. During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 witnessed that citizens were tragically sacrificed and learned about resisting injustice by joining the demonstrations for social justice on the street. In 1988, I studied social work in Seton Hill University. It is precious that I experienced our heritage and faith of Saint Elizabeth Ann Seton and the life of U.S Sisters.

Then I worked for two years at Jechon Social Welfare Center which provided programs for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I moved to Namdong Rehabilitation Center as a director to work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10 years. After that, I became a professional counselor and had a counselling ministry for 12 years. Since January 2018, I have been working at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in Iksan.



This new ministry is a big challenge because I had no experience in this area. However, it also becomes an opportunity that I trust in the Providence of God and rely on the Lord even in fear as Mother Seton said "so far I can express, but to speak the joy of my soul at the prospect of being able to assist the Poor, visit the sick, comfort the afflicted ...!"

There are 48 seniors residing in the nursing home and most of them have age-related diseases and dementia. At first, I needed more time to understand individual tendencies and conditions but now I understand and am familiar with them. Their simplicity and expression

of love give me energy. I thank my Lord that I have dedicated and shared every moment of my life on the journey as a Sister of Charity.

